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양육 효능감 및 자녀 성취에 대한 기대

Relationships between Maternal Social Support, Parenting-Efficacy,
and Aspirations for their Child's Attainment

이화여자대학교
석사 이승미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김희진

Early Childhood Education Major, Ewha Womans University
Master : Lee, Seung Mi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Kim, Heejin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논의 및 결론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결과 및 해석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ether maternal social support, parenting-eficacy, and the mothers' aspirations for their child's attainment were related. The subjects were 156 mothers with high socioeconomic status and 156 mothers with low socioeconomic status, whose 4-5 year old children were attending daycare center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mothers with higher socioeconomic status had higher levels of social support, parenting efficacy, and aspirations for their child's attainment than those with lower socioeconomic status. There were also positive relationships between a childhood mothers' maternal social support, parenting efficacy, and the mothers' aspirations for their child.

주제어(Key Words):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양육효능감(parenting-eficacy), 자녀 성취 기대(the mothers' aspirations for their child's attainment),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

Corresponding Author: Heejin Kim,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School of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11-1 Daehyun-dong, Seodaemun-gu, Seoul, 127-750, Korea Tel: 82-2-3277-2640 Fax: 82-2-3277-2625
E-mail: heejin88@ewha.ac.kr

I. 서론

우리 사회는 '가난의 대물림' 현상을 통해 부의 분배가 양극화되는 현상이 더욱 심해져 가고 있다(조선일보, 2004, 5, 4). 즉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정의 유아들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가정의 유아들 보다 성취를 이루는데 출발점부터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세습되기 쉽다. 이러한 가난의 대물림을 끊기 위해 일부 기업에서는 아동을 위한 공부방 만들기를 후원하기도 하며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자녀 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부모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녀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와 권한을 부여하며, 지역사회 자원을 제공하는 것 등을 통해 부모에게 다양한 측면의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김희진, 2001). 그렇지만 어머니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 부모가 처한 맥락에 따라 어머니들의 요구가 다르기 때문에 표준화된 부모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한 맥락 속에서 사는 부모에게 적용하는 것은 부적합하다(Garcia, 1994, 김희진, 2001에서 재인용 p. 103).

따라서 어머니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사회적 지지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실제 받고 있는 사회적 지지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머니들은 양육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어떤 목표와 기준을 두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부모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양육효능감, 자녀 성취에 대한 기대가 어떻게 다른 지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사회적 지지는 생태학적 관점에서 아동의 발달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이며(이은정, 1995), 이러한 연구를 통해 사회적 지지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라는 것이 밝혀졌다(이은혜, 이미리, 임연진, 1997; 황영주, 1996; Dunst, Trivette, & Cross, 1986; Jennings, Stagg, & Connors, 1991). 양육

효능감은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로서의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는 것으로(Johnston & Mash, 1997) 과제 수행에 대한 동기과 자신감에 영향을 미쳐서(Bandura, 1986),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문혁준, 1999; 신숙재, 1997; Coleman & Karraker, 1997; Elder, Eccles, Ardeit, & Lord, 1995; Teti & Gelfand, 1991).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자녀 성취에 대한 높은 기대는 지식 중심의 입시교육, 조기교육의 열풍 및 인성 교육의 부재 등 심각한 문제를 낳은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시각에서 보면 어머니들의 교육적 성취에 대한 높은 기대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긍정적 평가를 하기도 한다(배종근, 이미나, 1988). 또한 어머니의 교육적 성취에 대한 기대가 자녀들의 학업성취(권낙원, 1972; 이재현, 1994; 조수영, 1980; Dandy & Nettelbeck, 2002), 문제해결능력(Hess & Holloway, 1984; McGillicuddy-DeLisi, 1982), 그리고 유아들의 학업 능력에 대한 신념(Parsons, Adler, & Kaczala, 1982)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도 제시되고 있다. 즉 어머니의 지나치거나 왜곡된 기대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자녀에 대한 적절한 성취기대는 자녀의 성취 결과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유익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사회적 지지, 양육효능감, 자녀 성취에 대한 기대는 모두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므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필요하다. 현재까지는 하층과 중상층 중 어느 한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 지지(오승환, 1990; 장연진, 2000; 전춘애, 박성연, 1996; 최형성, 2001), 양육효능감(안지영, 2001; 정혜인, 2003), 자녀 성취에 대한 기대(안기준, 2000; 이재현, 1994) 각각을 연구한 연구물들은 있으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이러한 요인들을 비교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이러한 요인들이 어떻게 다른 지 알아보므로써 부모기의 맥락을 고려한 효율적인 부모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지지, 양육효능감, 자녀 성취에 대한 기대와 같은 요인들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도 적다. 부분적으로 사회적 지지와 양육효능감의 관계를 살핀 국내 연구(백중화, 2001; 신숙재, 1997)가 있기도 하지만, 이러한 세 가지 변인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발견할 수 없었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요인들은 서로 상호작용하여 복합적으로 어머니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관계를 살피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사회적 지지, 양육효능감, 자녀 성취에 대한 기대가 서로 어떤 관계를 맺어서 궁극적으로 자녀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적절한 부모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유아기 어머니들의 자녀 양육을 근본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할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양육효능감, 자녀 성취에 대한 기대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2.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양육효능감, 자녀 성취에 대한 기대는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에 위치한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만 4, 5세의 자녀를 가진 어머니들 중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 인 가정의 어머니 156명과 '하' 인 가정의 어머니 156명이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 인 어머니들과 '하' 인 어머니들은 학력($\chi^2_{(4)}=163.07, p<.001$)과 수입($\chi^2_{(9)}=158.56, p<.0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부모의 학력과 수입을 기준으로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눈 과정은

연구대상의 선정절차에 자세히 제시되어 있다.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배경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배경

연령	구분	빈도(%)	
		상(n=156) 34.9(3.6)*	하(n=156) 34.9(5.2)*
학력	중졸이하	0(0.0)	14(9.0)
	고졸	23(14.7)	118(75.7)
	전문대졸/대중퇴	24(15.4)	15(9.6)
	대졸	97(62.2)	8(5.1)
	대학원졸 이상	12(7.7)	1(.6)
수입	50만원 미만	16(10.3)	73(46.8)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5(3.2)	18(11.5)
	100만원 이상 - 150만원 미만	10(6.4)	47(30.1)
	15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12(7.7)	9(5.8)
	200만원 이상 - 250만원 미만	83(53.2)	9(5.8)
	25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22(14.1)	0(0.0)
	300만원 이상 - 350만원 미만	8(5.1)	0(0.0)
	35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0(0.0)	0(0.0)
	400만원 이상 - 450만원 미만	0(0.0)	0(0.0)
	450만원 이상	0(0.0)	0(0.0)

참고: *는 평균(표준편차)임.

2. 연구도구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정의 일반적인 배경,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양육효능감, 그리고 자녀 성취에 대한 기대를 묻는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어머니들의 사회적 지지에 대해 질문은 박지원(1985)의 '사회적 지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사회적 지지 척도'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국내에서 개발된 도구로서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도구이다. '사회적 지지 척도'의 내용은 상황중심 지지척도, 직접적으로 지각한 지지척도, 그리고 간접적으로 지각한 지지척도의 세 가지의 하위 요인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지지 기능에 대한 어머니들의

인식을 알아본 정서적, 정보적, 물질적, 평가적 지지 행위의 지지형태로 구분되어 있는 '간접적으로 지각한 지지척도'를 채택하여 사용하였다.

'간접적으로 지각한 지지척도'의 문항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수를 묻는 질문을 포함하여 26 문항으로 되어 있으나 예비조사 결과 문항이 많다는 어머니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어머니들의 수월한 답변을 위하여 문항 축소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1차 예비연구에서는 모든 문항을 사용하여 조사하였으나 2차 예비연구에서는 문항을 축소하기 위해 각 하위영역별로 문항의 반수를 채택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 도구의 타당도는 개발 당시 2단계에 걸쳐 전문가들의 함의를 거쳐 내용 타당도가, 요인분석을 거쳐 구인 타당도가 검증되었으며, 성영혜(1993), 신숙재(1997) 등의 연구에서 다른 변인들 간의 관계를 밝히는 과정에서 여러 번 사용되어 준거 타당도가 입증되었다. 1차 예비연구에서 전체 문항에 대한 Cronbach's α 는 .84였고 2차 예비연구에서 각 하위영역별로 문항의 반수를 무선 채택하여 재구성한 문항의 Cronbach's α 는 .81이었다. 2차 예비연구에서의 내적일관성 신뢰도도 높았기 때문에 2차 예비연구 시 사용했던 각 하위영역의 문항의 반수를 채택한 도구를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5단계 Likert식 평정척도를 사용하며 "전혀 그렇지 않다"이면 1점, "매우 그렇다"면 5점으로 이어지는 평정척도에 표시하도록 되어있다. 이 질문지를 이용하여 나올 수 있는 점수의 범위는 12~60점이고 본 연구 결과 어머니의 응답은 16~60점으로 나타났다.

2)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최형성, 정옥분(2001)의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국내에서 개발된 도구로서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도구이다.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의 내용은 전반적인 양육 능력,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의사소통 능력, 학습지도 능력 그리고 훈육 능력의 다섯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분된다. 모두 3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예비조사 결과 문항이 많다는 어머니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어머니들의 수월한 답변을 위하여 문항 축소가 필요하였다. 최형성, 정옥분(2001)이 문항 개발과정에서 요인 부하량이 .40이하인 문항을 제외시킨 것을 확대하여 요인 부하량이 .50이하인 문항을 모두 제외시켜 질문을 재구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은 모두 18문항이다.

본 연구 도구의 Cronbach's α 로 측정된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개발당시 전반적인 양육능력 .86,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80, 의사소통 능력 .79, 학습지도 능력 .75, 그리고 훈육 능력 .6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 질문지는 5단계 Likert식 평정척도를 사용하며 "전혀 그렇지 않다"이면 1점, "매우 그렇다"면 5점으로 이어지는 평정척도에 표시하도록 되어있다. 이 질문지를 이용하여 나올 수 있는 점수의 범위는 18~90점이고 본 연구 결과 어머니의 응답은 34~90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Cronbach's α 신뢰도 계수는 전반적인 양육능력 .87,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86, 의사소통 능력 .85, 학습지도 능력 .85, 그리고 훈육 능력 .78이었다.

3) 어머니의 자녀 성취에 대한 기대

어머니에게 자녀 성취에 대한 기대를 묻는 질문지는 어머니의 자녀 학력과 직업에 대한 기대를 묻는 질문과 자녀 인성-지적 성취에 대한 기대를 묻는 질문으로 구분되어 있다. 첫째, 어머니에게 자녀 학력과 관련된 기대를 묻는 질문은 오진숙(1979)의 학부모의 교육의식을 알아보는 질문 중에서 자녀에게 기대하는 학력, 가정 형편상 상급학교에 가기 어려울 경우 조치의 문항을 선택하고 하위 답변을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자녀의 직업과 관련된 기대를 묻는 질문은 광병선(1982)의 부모의 진로의식을 알아보는 질문 중에서 자녀에게 기대하는 직업을 묻는 질문을 선택하고 하위 답변을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직업에 관한 질문에 사용된 직업의 하위영역들은 홍두승(1982)의 직업분류를 사용하였다.

둘째, 어머니에게 자녀 인성-지적 성취에 대한 기

대를 묻는 질문은 안지영(2001)의 '어머니 양육신념 척도'를 사용하였다. '어머니 양육신념 척도'는 자녀 양육목표 및 발달에 영향을 주는 신념을 알아보기 위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국내에서 개발된 도구로서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도구이다. '어머니 양육신념 척도'의 내용은 '인성-지적 성취 강조 신념'과 '성숙-환경주의 신념'의 두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본 연구는 어머니의 자녀 인성-지적 성취에 대한 기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기 때문에 '인성-지적 성취 강조 신념'만을 채택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은 모두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양쪽에 인성을 강조하여 기대하는 입장과 지적 성취를 강조하여 기대하는 입장이 대립되어 제시된다. 본 척도는 인성과 지적 성취 기대 점수가 따로 측정되었다. 즉 1점부터 7점까지 연속 선상에 있는 인성-지적 성취 기대 점수를 인성-지적 성취 기대가 균형을 이룬 중간 점수를 1로 보고 각각 인성, 지적 성취 기대에 치우치는 정도에 따라 1점부터 4점까지로 채점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나올 수 있는 점수의 범위는 인성, 지적 성취 기대 각각 12~48점이고 본 연구 결과 어머니의 응답은 인성 성취에 대한 기대 12~48점, 지적 성취에 대한 기대 12~32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도구의 준거 타당도는 정혜인(2003) 등의 연구에서 입증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Cronbach's α 신뢰도 계수는 인성 성취 기대 .82, 지적 성취 기대 .73으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1) 연구대상 선정절차

연구대상은 서울시에 위치한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만 4, 5세 자녀를 가진 어머니 중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인 어머니 156명, '하'인 어머니 156명이다.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으로 다양한 계층의 어머니를 모집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하층 어머니들을 모집하기 위해 서울시 각 구청에 전화 문의하여 저소득층이 밀

집한 지역을 알아낸 후, 저소득 밀집지역에 소재한 어린이집 목록에서 만 4, 5세반이 2개 반 이상이 있는 곳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어린이집에 전화를 걸어 보육료 감면 대상자가 5명 이상 재원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16개 어린이집이 해당되었고, 각 어린이집의 기관장 승인을 받아 질문지 배포하였다.

중상층의 어머니들을 모집하기 위해 저소득 밀집지역을 제외한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목록에서 만 4, 5세반이 2개 반 이상이 있는 곳 중 9곳의 어린이집을 무선 선정하였다. 선정된 어린이집의 기관장에게 전화로 질문지 배포에 대한 승인을 구하였고 승인하지 않는 경우 다시 무선 표집하여 대상을 선정하였다. 어머니들에게 배부된 600부의 질문지중 482부가 회수되어 80.5%의 회수율을 보였는데, 무응답 문항이 많은 질문지를 제외하고 469부가 본 연구에 사용되었다.

469부의 설문지를 대상으로 다음의 절차에 따라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구분하는 지표로 아버지, 어머니의 학력과 수입을 사용하였다. 학력은 중학교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또는 대학교 중퇴, 대학교졸, 대학원졸의 5가지 집단으로 구분하였고 수입은 100만원 미만부터 450만원 이상 사이를 50만원 간격으로 10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아버지, 어머니의 학력과 수입을 같은 비중으로 반영하기 위해 학력은 각 집단 별로 2를 곱하여 점수를 계산하였으며, 수입의 점수는 그대로 사용하여 각 10점, 총 40점 만점으로 채점하였다. 예를 들어 아버지는 고졸(2×2점), 어머니는 중졸이하(1×2점), 아버지 수입은 200만원 미만(3점), 어머니 수입이 없을 경우(0점), 그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총점은 9점으로 계산되었다.

위와 같은 점수 채점 방식으로 각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총점을 구한 후, 전체를 33.3%씩 3그룹으로 나누어서 가장 점수가 높은 그룹을 '상', 중간 그룹을 '중', 가장 점수가 낮은 그룹을 '하'로 사회·경제적 지위를 구분하였다.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어머니들의 사회적 지지, 양육 효능감, 자녀 성취에 대한 기대를 비교하기 위해 중집단을 제

외한 상층 156명과 과 하층 156명만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2) 예비연구

본 연구를 실시하기에 앞서 연구에 사용될 질문지의 적절성과 문제점, 그리고 질문지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만 4, 5세 자녀를 가진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총 2회의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예비조사에서는 동작구에 소재한 어린이집에서 보육료를 감면 받는 만 4, 5세 자녀를 둔 어머니 10명과 강남구 중상층 가정의 어머니 2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1차 예비연구에서 나타난 어머니 사회적 지지, 양육효능감, 그리고 자녀 인성-지적 성취에 대한 기대 문항들의 Cronbach's α 신뢰도는 각각 .77, .84, .73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1차 예비 연구 결과 문항에 대한 이해가 어렵지는 않으나 문항이 많다는 의견이 있었고, 저소득층에서 가정의 월수입과 부모 직업의 기재를 꺼려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이를 고려하여 문항 수를 줄이고, 월수입과 직업은 직접 적는 방식에서 객관식으로 범주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2차 예비연구에서는 1차 예비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질문지는 문항의 반수를 무선 채택하고, 어머니 양육효능감 척도는 문항 개발과정에서 요인분석 결과 해당 요인과의 요인 부하량이 낮았던 문항을 추가로 제외시켜 문항 수를 줄였다. 특히, 2차 예비연구는 어머니들에게 직접 질문의 적절성과 응답 작성 방법의 이해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일대일로 실시하였다. 서울시 강남의 C어린이집에서 만 4, 5세 유아를 둔 12명의 어머니에게 하원시간에 일대일로 질문지 작성을 요구하고 직접 질문지의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2차 예비연구 결과 취업모들이 어린이집에 많은 시간을 고려하여 설문 작성 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기재할 수 있도록 주말에 작성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이는 배부 및 수거 시에 반영하였다. 그리고 자녀의 만 연령에 혼돈을 보이는 어머니들이 간혹 있어서 자녀의 연령을 기재하는 방식 대신 생년월일을 적도록 수정하였다.

3) 본 연구

예비 조사를 통해 수정을 거친 어머니용 질문지는 어린이집의 만 4, 5세 어머니들 총 600명에게 배부되었다. 질문지는 연구자가 시설장에게 전달하여 각반의 담임교사가 유아를 통해 어머니에게 전달하고 수거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며 최종 수거된 질문지는 연구자가 직접 기관에 가서 수거하였다. 기관에서는 어머니들이 주말 동안 질문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배부, 수거하고, 질문지에 작은 선물을 동봉하여 회수율을 높였다.

4.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WIN 11.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각 연구 문제 당 자료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에서는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양육효능감, 자녀 성취에 대한 기대의 전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빈도, 백분율을 알아보았다 또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양육효능감, 자녀 성취에 대한 기대에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t-test와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2에서는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와 양육효능감, 양육효능감과 자녀에 대한 인성 및 성취기대, 그리고 사회적 지지와 자녀에 대한 인성 및 성취기대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각각 Pearson 상관 분석, 학력기대에 따른 양육효능감과 사회적 지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각각 t-test를, 그리고, 직업기대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Oneway Anova 후 Scheff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양육효능감, 자녀 성취에 대한 기대

먼저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어머니 사회적 지지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 본 결과(<표 2> 참조),

물질적 지지($t=3.16, p<.01$), 정서적 지지($t=4.03, p<.001$), 평가적 지지($t=3.92, p<.001$) 및 전체($t=4.22,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모든 영역에서 상층 어머니들이 하층 어머니에 비해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사회적 지지 인원수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이 없이 평균 5명 이하의 비교적 적은 수의 지지 인원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어머니 양육효능감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한 결과 상층 어머니들이 하층 어머니들보다 전반적인 양육 능력($t=2.86, p<.01$), 의사소통 능력($t=2.48, p<.05$), 학습지도 능력($t=4.47, p<.001$) 및 전체($t=3.80, p<.001$) 측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양

육효능감을 가지고 있었다(〈표 3〉 참조).

셋째,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어머니의 자녀 성취에 대한 기대를 자녀의 학력과 직업에 대한 기대, 인성과 지적 성취에 대한 기대로 나누어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어머니의 자녀 학력에 대한 기대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증을 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상층의 어머니들은 자녀가 대학원졸의 학력을 가지기를 가장 많이 기대(77.6%)하였던 것에 비하여 하층의 어머니들은 자녀가 대졸의 학력을 가지기를 가장 기대(55.7%)하여 상층과 하층 어머니들의 자녀 학력에 대한 기대에서 차이가 나타났다($\chi^2_{(2)}=53.77, p<.001$).

다음으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어머니의 가정형편상 자녀를 상급학교에 진학시키기 어려울 경우에 대한 조치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표 2〉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지지 인원수

	사회·경제적 지위		t	
	상(n=156) M(SD)	하(n=156) M(SD)		
어머니의	물질적 지지	3.53(.88)	3.20(.93)	3.16**
	정서적 지지	3.77(.70)	3.60(.81)	1.96
사회적	정서적 지지	3.90(.76)	3.53(.86)	4.03***
	평가적 지지	3.78(.63)	3.47(.74)	3.92***
전 체	3.90(.63)	3.57(.72)	4.22***	
사회적 지지 인원수	4.58(3.69)	4.46(2.33)	.32	

** $p<.01$, *** $p<.001$

〈표 4〉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어머니의 자녀 학력에 대한 기대 빈도(%)

	사회·경제적 지위	빈도(%)	
		상	하
자녀 학력에 대한 기대	전문대졸	1(.6)	9(5.8)
	대 졸	34(21.8)	87(55.7)
	대학원졸	121(77.6)	60(38.5)
	계	156(100.0)	156(100.0)

$\chi^2_{(2)}=53.77, p<.001$

〈표 3〉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사회·경제적 지위		t	
	상(n=156) M(SD)	하(n=156) M(SD)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	전반적인 양육 능력	3.34(.68)	3.10(.79)	2.86**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3.75(.66)	3.60(.80)	1.82
	의사소통 능력	3.68(.59)	3.51(.67)	2.48*
	학습지도 능력	3.76(.65)	3.42(.72)	4.47***
	훈육 능력	3.76(.61)	3.65(.63)	1.54
	전 체	3.59(.58)	3.33(.62)	3.80***

* $p<.05$, ** $p<.01$, *** $p<.001$

χ^2 검증을 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가정형편에 따른다는 의견에서는 하층(21.8%)이 상층(8.3%)보다 많았으며, 앞날을 위해 어떻게든 상급학교에 보낸다는 의견에서는 상층(43.0%)이 하층(29.5%)보다 많아 상층과 하층 어머니들의 의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chi^2_{(3)}=15.33, p<.01$).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어머니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직업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증을 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상층의 어머니들(72.4%)은 하층의 어머니들(57.1%)보다 자녀에게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의 전문직을 기대하는 비율이 더 높았으며, 하층의 어머니들(32.1%)은 상층의 어머니들(17.3%)보다 자녀에게 교사, 사무종사자 및 일반공무원 등의 직업을 기대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chi^2_{(3)}=12.08, p<.01$).

마지막으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어머니의 자녀 인성·지적 성취에 대한 기대를 알아보기 위하

여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먼저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인성 성취 기대의 평균 점수는 상층과 하층이 각각 2.33점, 2.50점으로 나타난 것에 비해 지적 성취 기대의 평균 점수는 각각 .77점과 .50점이 나타나 인성 성취를 훨씬 더 많이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는 인성 성취 기대가 높았지만,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어머니의 자녀 인성·지적 성취에 대한 기대에 차이가 있

<표 7>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어머니의 자녀 인성·지적 성취 기대

	사회·경제적 지위		t
	상(n=156) M(SD)	하(n=156) M(SD)	
인성 성취 기대	2.33(.57)	2.50(.52)	2.73**
지적 성취 기대	.77(.55)	.50(.53)	-4.00***

p<.01, *p<.001

<표 5>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어머니의 자녀가 가정형편상 상급학교 진학이 어려운 경우에 대한 조치 빈도(%)

	가정형편에 따른	사회·경제적 지위	
		상	하
가정형편상 상급학교 진학이 어려울 경우에 대한 조치	가정형편에 따른	13(8.3)	34(21.8)
	자녀의 선택과 의견에 따른	71(45.5)	74(47.4)
	앞날을 위해 어떻게든 보냄	67(43.0)	46(29.5)
	기 타	5(3.2)	2(1.3)
	계	156(100.0)	156(100.0)

$\chi^2_{(3)}=15.33, p<.01$

<표 6>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어머니의 자녀 직업에 대한 기대 빈도(%)

	어머니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직업*	사회·경제적 지위	
		상	하
어머니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직업*	고위관리자, 자본가	14(9.0)	11(7.0)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113(72.4)	89(57.1)
	교사, 사무종사자 및 일반공무원	27(17.3)	50(32.1)
	자영업자(판매직)	2(1.3)	6(3.8)
	계	156(100.0)	156(100.0)

$\chi^2_{(3)}=12.08, p<.01$

*: 어머니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직업으로 나타나지 않았던, 자영업자, 서비스직·숙련공, 가사종사자 및 시간제·비정기 노동자의 범주는 통계처리에서 제외됨.

는지 살펴본 결과 인성 성취 기대($t=2.73, p<.01$)는 하층 어머니들이, 지적 성취 기대($t=-4.00, p<.001$)는 상층 어머니들이 높았다.

2.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양육효능감, 자녀 성취에 대한 기대의 관계

첫째,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와 양육효능감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사회적 지지의 하위영역인 물질적 지지($r=.15, p<.01$), 정보적 지지($r=.15, p<.01$), 정서적 지지($r=.17, p<.01$), 평가적 지지($r=.20, p<.01$) 및 전체($r=.22, p<.001$)에서 모두 어머니 양육효능감과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가 많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자녀 성취에 대한 기대와의 관계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자녀의 학력과 직업에 대한 기대, 그리고 양육효능감과 인성-지적 성취 기대로 나누어서 살펴본 결과는 아래와 같다. 먼저 학력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자녀가 대졸이하보다 대학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기를 원하는 부모들의 양육효능감은 전반적인 양육능력($t=2.22, p<.05$), 학습지도 능력($t=3.96, p<.001$)과 전체($t=2.92, p<.01$)에서 높았다. 그러나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진학이 어려울 경우에 취할 조치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자녀의 직업에 대한 기대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이 없었다.

<표 9>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따른 자녀 학력에 대한 기대

		학력 기대		t
		대졸 이하 M(SD)	대학원졸 M(SD)	
어머니 양육 효능감	전반적 양육	3.11(.78)	3.30(.72)	2.22*
	건강 양육	3.61(.78)	3.71(.71)	1.23
	의사소통	3.51(.66)	3.65(.61)	1.95
	학습지도	3.42(.70)	3.73(.68)	3.96***
	훈 육	3.65(.62)	3.75(.61)	1.54
	전 체	3.35(.57)	3.55(.63)	2.92**

* $p<.05$, ** $p<.01$, *** $p<.001$

다음으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자녀 인성-지적 성취에 대한 기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어머니의 인성 성취 기대가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의 하위 영역인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r=.15, p<.01$), 의사소통 능력($r=.18, p<.01$)에 대한 효능감이 높았다. 반면, 어머니의 지적 성취 기대가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의 하위영역인 전반적인 양육능력($r=-.20, p<.01$),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r=-.29, p<.001$)과 의사소통 능력($r=-.31, p<.001$)에 대한 효능감이 낮았고 학습지도 능력에 대한 효능감($r=.14, p<.05$)은 높았다.

셋째,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와 자녀 성취에 대한 기대의 관계를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와 자녀 학력과 직업에 대한 기대, 그리고 사회적 지지와 인성-지적 성취에 대한 기대로 나누어서 살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녀의 학력에 대한 어머니 기대 수

<표 8>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와 양육효능감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전반적 양육	건강 양육	의사소통	학습지도	훈 육	전 체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물질적 지지	.11*	.04	.15**	.18**	.23***	.15**
	정보적 지지	.12*	.13*	.20***	.13*	.15*	.15**
	정서적 지지	.26***	.28***	.37***	.11	.23***	.17**
	평가적 지지	.20***	.19**	.25***	.23***	.23***	.20**
	전 체	.22***	.20***	.27***	.22***	.27***	.22***

* $p<.05$, ** $p<.01$, *** $p<.001$

〈표 10〉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자녀 인성-지적 성취에 대한 기대

	양육효능감					전 체
	전반적 양육	건강 양육	의사소통	학습지도	훈 육	
인성 성취 기대	.09	.15**	.18**	-.03	.09	.01
지적 성취 기대	-.20**	-.29***	-.31***	.14*	-.05	.09

* $p < .05$, ** $p < .01$, *** $p < .001$

준의 차이에 따라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가 다른지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자녀가 대졸이하보다 대학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기를 원하는 부모들이 사회적 지지의 모든 하위영역인 물질적 지지($t=2.25, p < .05$), 정보적 지지($t=2.13, p < .05$), 정서적 지지($t=2.67, p < .01$), 그리고 평가적 지지($t=2.44, p < .05$) 및 전체 지지($t=2.74, p < .01$)를 더 많이 받는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가 자녀의 진학이 어려울 경우 취

할 조치에 따라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의 수준은 다르지 않게 나타났다. 직업에 대한 기대에 따라 어머니가 인식한 사회적지지 수준이 다른 지 일원 변량분석(Oneway ANOVA)과 Scheff 사후검증을 통해 알아본 결과는 〈표 12〉와 같다. 자녀의 직업으로 고위관리자나 자본가를 희망하는 어머니 집단이 다른 집단의 어머니들보다 사회적 지지의 하위영역인 정서적 지지($F=2.67, p < .05$)와 평가적 지지($F=4.18, p < .01$)를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와 자녀 인성-지적 성취 기대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어머니의 인성 성취 기대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의 하위영역 중 정서적 지지($r=.19, p < .01$)와 평가적 지지($r=.13, p < .05$)를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어머니의 지적 성취 기대가 높을수록 물질적 지지($r=.15, p < .01$)는 높게 인식하고 있었고 정서적 지지($r=-.33, p < .001$)는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표 11〉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에 따른 자녀 학력에 대한 기대

		학력 기대		t
		대졸 이하 M(SD)	대학원 M(SD)	
어머니 사회적 지지	물질적 지지	3.24(.93)	3.48(.90)	2.25*
	정보적 지지	3.58(.76)	3.76(.75)	2.13*
	정서적 지지	3.56(.82)	3.81(.83)	2.67**
	평가적 지지	3.51(.67)	3.71(.71)	2.44*
	전 체	3.61(.69)	3.83(.69)	2.74**

* $p < .05$, ** $p < .01$

〈표 12〉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에 따른 자녀 직업에 대한 기대

		직업 기대				F
		고위관리자, 자본가 M(SD)	전문직 M(SD)	사무종사자, 교사 M(SD)	자영업자 M(SD)	
어머니 사회적 지지	물질적 지지	3.50(.81)	3.44(.91)	3.18(.96)	3.21(.86)	1.68
	정보적 지지	3.78(.64)	3.73(.74)	3.55(.84)	3.38(.59)	1.48
	정서적 지지	3.94(.69) ^a	3.75(.78)	3.54(.95) ^b	3.25(1.12) ^b	2.67*
	평가적 지지	3.78(.57) ^a	3.69(.67)	3.45(.78) ^b	3.05(.52) ^b	4.18**
	전 체	3.83(.54)	3.79(.68)	3.58(.77)	3.55(.68)	2.08

ab: 다른 문자끼리 집단간의 차이를 나타냄.

* $p < .05$, ** $p < .01$

<표 13>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와 자녀 인성·지적 성취 기대의 관계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전 체
	물질적 지지	정보적 지지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인성 성취 기대	.04	.10	.19**	.14*	.07
지적 성취 기대	.15**	-.02	-.33***	-.03	.08

*p< .05, **p< .01, ***p< .001

IV. 논의 및 결론

1.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양육효능감, 자녀 성취에 대한 기대

첫째, 어머니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 결과는 도시 저소득층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사회적 관계망을 연구한 장연진(2000)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어머니들에게 다양한 측면의 사회적 지지가 필요함을 알려 준다. 특히 하층 어머니들은 정서적 지지를 적게 받는다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는 가정에서 가장 쉽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배우자의 지지가 부족하거나, 자신과 비슷한 경험이 있는 집단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적 지지를 받을 기회가 적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하층 어머니의 낮은 평가적 지지는 객관적으로 어머니의 양육에 대해 격려하고, 지지하는 전문가의 도움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어머니들의 정보적 지지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정보화 사회인 만큼 자녀 교육에 대한 정보는 많으나 이러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다른 영역의 지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사회적 지지에 대해 빈곤감을 느끼고 있는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어머니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특히 물질적, 정서적, 평가적 지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사회적 지지 인원수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두 5명 이하였다. 이는 성영혜(1993)가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 모두 사회적 지지 제공자의 수가 4명

정도라고 한 연구 결과와 비슷한 결과이다. 또한 세대주의 소득, 주거 상태, 생활보호대상 여부 등이 사회적 지지원의 수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다는 오승환(1990)의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다. 이런 결과들은 사회적 지지 인원수의 양보다 질이나 지원의 유형이 중요함을 암시한다. 저소득층 기혼여성들의 사회적 지지원은 친인척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장연진, 2000; 오승환, 1990) 이웃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기회가 적다. 그런데, 저소득층 가족의 경우 가족 및 친척의 도움보다는 친구나 전문가의 평가적 지지가 더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김은영, 2002),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어머니들에게 양육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웃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즉, 양육경험이 있는 친구나 이웃 혹은 전문가가 그들의 존재 가치를 수용하면서 자녀양육을 인정해 주거나 관련된 정보를 전달한다면 저소득가정의 어머니에게 효과적이 지원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유아교육기관에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사회복지기관과 연계하여 물질적 지지를 제공함은 물론 어머니들이 가정에서 쉽게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를 위한 부모 교육을 실시하여 아버지들이 자녀 양육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고 지지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비슷한 양육경험이 있거나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있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소집단 부모모임의 기회를 마련하여 정서적 유대감을 가지고 문제를 의논하여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서로 양육에서의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과정에 전문가가 개입하고 이를 중재해가는 과

정에서 자신의 양육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고 자신의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얻어 효율적이며 적극적으로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어머니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전체적으로 양육효능감이 낮았다. 즉,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어머니들은 높은 어머니들에 비해 전반적인 양육이나 의사소통, 학습지도를 하는 자신의 능력을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이 결과는 부모의 경제력(박영애, 나중혜, 2003; Brody, Flor, & Gibson, 1999), 사회·경제적 지위(전인옥, 이경옥, 1999; 우희정, 이숙, 1994), 그리고 부모의 교육 수준(김향은, 정옥분, 1999; 문혁준, 1999; 정혜인, 2003)과 양육효능감이 정적 관계가 있다는 기존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이나 훈육능력에 대한 효능감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어머니들이 다른 영역에 비해 이러한 영역에서 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들의 낮은 효능감은 양육에 대한 무력감을 조성하여 자녀 양육에 소홀하거나 부정적인 양육 행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어머니들의 효능감을 높여 줄 수 있도록 적절한 부모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러한 부모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전반적인 양육이나 자녀와의 의사소통, 학습지도에 필요한 정보뿐만 아니라 자신이 행하고 있는 자녀 양육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어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어머니의 자녀 성취에 대한 기대는 자녀 학력과 직업에 대한 기대 그리고 인성-지적 성취에 대한 기대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먼저 학력에 대한 기대에서는 하층 어머니들은 대학 졸업 학력을, 상층의 어머니들은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많이 기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기대수준은 부모의 배경 즉 교육수준과 수입의 영향을 받는다는 이재현(1994)과 오진숙(1979)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비록 하층의 어머니들도 대학 졸업학력을 기대하기 때문에 아주 낮은 기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층의 어머니들보다 낮은

기대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들은 과거의 경험, 현재의 상황, 경제적 능력 등의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자녀에 대한 기대 수준을 낮게 잡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교육이 계층 이동의 주요수단이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저소득층 어머니들의 낮은 진학 기대는 자녀가 실제로 이루는 성취 결과에 영향을 미쳐 사회·경제적 지위가 세습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 어머니들에게 그들이 양육 시 느끼는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게 지원하여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 양육 행동이나 자녀의 실제 성취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또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가정형편상 상급학교 진학이 어려운 경우에 대한 조치도 다르게 나타났다. 하층의 어머니들은 가정형편에 따른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상층의 어머니들은 자녀의 앞날을 위해 어떻게든 상급학교에 보낸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신선미(1990)의 문화 기술적 연구에서 빈민지역 어머니들이 자녀를 대학에 보내겠다는 막연한 희망만 가지고 있다는 주장에 의해 지지된다. 하층의 어머니들은 상층의 어머니들 보다 학급학교 진학에 수반되는 어려움을 더욱 크게 지각하여 가정형편에 따라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어머니의 자녀 직업에 대한 기대도 다르게 나타났는데, 상층의 어머니들이 사회적 지위가 높은 전문직을 자녀에게 더 많이 기대하였다. 오진숙(1979)도 자녀의 직업선택에 있어서 상층은 명예직을, 그리고 하층은 현실적인 기술직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임선희(1974)의 연구에서도 중층의 어머니들이 하층의 어머니보다 전문직을 더욱 선호하고 비교적 하층은 기술자를 선호한다고 밝히고 있어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어머니의 자녀 학력에 대한 기대에서 나타난 차이에서처럼 하층의 어머니들은 고위관리자, 자본가 등의 직업이나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의 전문직을 선호하지만 경제적 어려움 등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자녀 직업에 대한 기대 수준을 낮추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어머니의 기대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머니들이 양육에서 느끼는 어려움들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사회적 지지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어머니의 전반적인 인성-지적 성취에 대한 경향을 살펴 본 결과에서는 상층, 하층의 어머니들은 모두 지적인 성취에 비해 인성 성취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진화(1994), 최은미(1985)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어머니들은 자녀에게 대졸 이상의 높은 학력과 전문직이나 교사, 사무종사자 및 일반공무원 등의 높은 지위의 직업을 자녀에게 희망하지만 지적 성취에 대한 기대보다는 인성적인 기대를 보다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어머니들은 지적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성적 영역을 중시하지만 지적인 성취를 기대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으며 Grusec, Goodnow와 Kuczynski(2000)의 주장에서처럼 어머니들의 상황이나 자녀의 수준에 따라 여러 개의 목표를 동시에 가져 인성 성취 기대와 더불어 지적 성취 기대 수준도 높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어머니의 자녀 인성-지적 성취에 대한 기대가 달랐는데, 상층의 어머니들은 낮은 인성 성취와 높은 지적 성취기대를 갖고 있었다. 상층 어머니들이 하층 어머니들 보다 학습지도 능력에 대한 효능감이 높았던 점을 미루어 보아 어머니들의 학습지도 능력에 대한 효능감이 어머니의 높은 지적 성취에 대한 기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어머니들의 높은 지적 성취에 대한 기대는 자녀의 학습에 대한 지원 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상층의 어머니들은 자녀에게 지적인 성취를 강요하고 사교육 등으로 자녀의 학습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유아기 자녀를 가진 상층의 어머니들에게는 지적인 성취에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부모교육 등을 통해 개입을 하고 하층의 어머니들에게는 학습지도 능력에 대한 효능감을 높여주기 위해 역시 부모교육 등 부모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개입을

하여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어머니의 자녀 양육에서의 차이의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양육효능감, 자녀 성취에 대한 기대

첫째, 사회적 지지의 전 하위영역과 양육효능감은 밀접한 상관이 있었다. 이는 신숙재(1997), Cutrona와 Troutman(1986), Dorsey, Klein, Forehand와 Family Health Project Research Group(1999), 그리고 Teti와 Gelfand(1991)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적을수록 부모 효능감이 낮았다고 보고한 결과와 일치한다. 김은영(2002)의 연구에서도 친구 및 이웃으로부터 제공된 평가적 지지가 특히 자기 효능감과 관계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주변 사람들이 제공하는 양육에 관한 정서적, 물질적, 정보적, 평가적 지지는 어머니에게 자녀 양육을 잘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부여하고, 실질적인 도움과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나타난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어머니들에게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은 양육효능감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으므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어머니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적 지지를 적절히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자녀 성취에 대한 기대는 자녀 학력 및 직업에 대한 기대와 인성-지적 성취에 대한 기대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먼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자녀 학력에 대한 기대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들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력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특히 대학원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길 희망하는 집단일수록 전반적인 양육 능력, 학습지도 능력에 대한 효능감이 높았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어머니들이 전반적인 양육 능력이나 학습지도 능력에 대한 효능감이 낮았던 점을 미루어 볼 때 하층 어머니들이 자녀 학력에 대한 기대 수준이 낮은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하층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양육효능감 중 특히, 전반적인 양육 능력과 학습지도 능력에서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다면, 어머니의 자녀

성취에 대한 기대에도 영향을 미쳐, 자녀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자신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양육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자녀 인성-지적 성취에 대한 기대의 관계를 살펴보면, 인성 성취 기대가 높을수록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효능감이 높았고, 지적 성취 기대가 높을수록 전반적인 양육, 건강,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효능감이 낮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만 5세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정혜인(2003)의 연구에서 지적 성취를 강조하는 신념을 가진 어머니일수록 양육효능감을 낮게 느낀다고 보고한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지적 성취 기대가 높을수록 학습지도에 대한 효능감은 높게 나타났는데, 효능감은 영역 특정적 개념(Bandura, 1982)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지적 성취 기대가 높을수록 학습지도에 대한 효능감이 높은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나 상층 어머니들의 양육효능감이 더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성 성취보다 지적 성취가 더 높게 나타난 결과는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 이런 비일관성은 상층의 어머니들이 인지에 혼란을 겪고 있음을 암시한다. McGillicuddy-DeLisi(1985)가 부모들은 그 문화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자녀 양육에 반영한다고 주장한 것처럼, 조기교육의 열풍이나 입시 위주의 교육, 학벌 중심 사상 등의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지적 성취를 강조할 수 밖에 없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결과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어머니들이 일관성있게 자녀양육 목표를 설정하고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와 자녀 성취에 대한 기대는 자녀의 학력과 직업에 대한 기대, 그리고 인성-지적 성취에 대한 기대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기대하는 어머니 집단과 고위 관리자 및 자본가의 직업을 원하는 어머니 집단이 물질적, 정보적, 정서적, 그리고 평가적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느끼고 있었다. 어머니들에게 사회적 지지가 많이 제공될수록 자녀를 양육하는 지원체제가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학력과 직

업에 대한 기대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와 자녀에 대한 인성-지적 성취 기대의 관계에서는 하위 영역별로 의미 있는 관계가 나타났다. 정서적 지지와 평가적 지지는 어머니들의 인성 성취 기대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물질적 지지는 지적 성취기대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그리고 정서적 지지는 지적 성취 기대와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들의 인성-지적인 성취 기대는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고 양쪽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때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어머니들이 어느 한쪽에 지나치지 않도록 적절한 사회적 지지 제공을 통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어머니 사회적 지지, 양육효능감, 자녀 성취에 대한 기대에 차이가 나타남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유아교육기관에서 부모들에게 자녀 양육을 도와주기 위하여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고자 할 때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즉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어머니들의 요구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인 부모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보다는 그들의 요구에 맞는 차별화된 부모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는 결정적 시기에 있는 유아들에게 궁극적으로 도움을 주어 유아들이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공정한 시작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 결과 하층 어머니들은 상대적으로 사회적 지지, 양육효능감, 그리고 자녀 성취에 대한 기대를 모두 낮게 보고하여 상층 어머니들과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사회적 지지, 양육효능감, 자녀 성취에 대한 기대는 자녀 양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고려할 때 하층 어머니들의 자녀들은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양육 행동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런 어머니의 자녀 양육 행동에서의 차이는 자녀의 성취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가정의 빈곤을 세습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자녀 양육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어 불리한 입장에 있는 어머니들에게 능력과 자신감, 정보, 권한 등을 부여하여 자녀 양육에서의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게 하여야 한다. 즉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양육 행동을 나타낼 수 있도록 부모들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사회적 지지나 양육 효능감, 자녀 성취에 대한 기대가 자녀 양육 행동이나 자녀 성취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벗어나 사회적 지지, 양육효능감, 자녀 성취 결과의 관계를 밝혔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자녀 양육 행동이나 자녀 성취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자녀 양육 행동에 근본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준다. 즉 어머니의 자녀 양육 행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근본적으로 적절한 사회적 지지가 필요함을 확신시켜 준다.

본 연구 결과를 기초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자녀의 성취 결과에 영향을 주는 어머니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 양육효능감, 자녀 성취에 대한 기대만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자녀의 성취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은 양육스트레스, 역할만족도, 생활사건, 어머니의 교육관 등 다양하다. 따라서 자녀의 성취 결과에 영향을 주는 좀더 다양한 변인을 고려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떤 구조로 서로 상호 작용하여 유아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존재할 수 있는 불평등 요소에 적절히 개입하고 어머니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양육효능감, 자녀 성취에 대한 기대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지위 이외에 어머니들은 취업여부, 배우자의 유무, 생활사건, 부모의 장애 여부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어머니들의 인지구조를 밝히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가난은 제도탓'에 걸린 위험신호 (2004, 5, 4), 조선일보, A31.
- 곽병선(1982). 국민학교 아동, 교사, 학부모의 진로의식에 관한 기초조사연구(연구보고 CR 82-30). 한국교육개발원.
- 권낙원(1972). 학생이 지각한 부모 및 교사의 성취 기대가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영(2002). 사회적 지지가 빈곤가족의 입파위먼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향은, 정옥분(1999). 자녀의 힘을 북돋우는 부모 프로그램이 어머니와 자녀에게 미치는 효과: 어머니의 역할 만족, 의사소통 및 자녀의 자아 존중감, 사회적 능력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0(4), 170-193.
- 김희진(2001). 저소득 지역 부모지원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보육시설에서의 포괄적 보육서비스(pp. 99-132). 서울: 삼성복지재단.
- 문혁준(1999). 취업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부모 효능감이 자녀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7(6), 97-107.
- 박영애, 나종혜(2003). 출산 전후 여성의 양육관련 신념 및 부모 효능감에 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2(3), 287-301.
- 박지원(1985).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배종근, 이미나(1988). 한국교육의 실제 -국민은 교육을 어떻게 생각하나. 서울: 교육과학사.
- 백종화(2001). 어머니의 인터넷 이용실태 및 사회적 지지로서 인터넷 이용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성영혜(1993). 부모의 사회적 지지체계가 아동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선미(1990). 학교교육에 대한 희망과 좌절.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숙재(199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안기준(2000). 부모의 자녀 교육기대의 시계열적 변화.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지영(2001).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오승환(1990). 도시빈민의 사회적 관계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진숙(1979). 사회계층에 따른 학부모의 교육의식과 교사의 학생을 보는 태도에 관한 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희정, 이 숙(1994). 가정환경과 아동의 자기-효능감 간의 인과모형 탐색. 아동학회지, 15(1), 71-91.
- 이은정(1995). 부모역할 지지체계와 유아의 인기도 및 사회적 능력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은혜, 이미리, 임연진(1997).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과 양육 난의도 지각의 효과. 유아교육연구, 17(2), 119-137.
- 이재현(1994). 부모의 기대와 지원이 자녀 학업성취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진화(1994). 4세 유아의 교육내용에 대한 학부모의 기대.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선희(1974). 중층과 하층 부모의 교육적 가치의식에 대한 조사연구: 서울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연진(2000). 도시 저소득층 기혼여성의 사회적 관계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인옥, 이경옥(1999). 유아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인과모형 탐색: 사회경제적 지위, 어머니의 교육신념과 양육에 대한 자기효능감, 양육 행동의 영향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19(1), 169-187.
- 전춘애, 박성연(1996). 자녀 양육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4(5), 115-129.
- 정혜인(2003). 어머니의 양육신념 및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수영(1980). 학업성적과 가정환경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은미(1988). 3, 4, 5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교육적 요구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형성(2001).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및 스트레스와 아동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형성, 정옥분(2001).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의 개발. 아동학회지, 22(3), 1-15.
- 홍두승(1982). 경제발전과 사회계층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 황영주(1997). 어머니의 취업유무와 사회적 지지와 자녀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andura, A. (1982). Self-efficacy mechanism in human agency. *American Psychologist*, 37(2), 122-147.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Inc.
- Brody, G., Flor, D., & Gibson, N. (1999). Linking maternal efficacy beliefs, developmental goals, parenting practices, and child competence in rural single-parent african american families. *Child Development*, 70(5), 1197-1208.
- Coleman, P., & Karraker, K. (1998). Self-efficacy and parenting quality: Findings and future applications. *Developmental Review*, 19, 47-85.
- Cutrona, C., & Troutman, B. (1986). Social support, infant temperament, and parenting self-efficacy: A mediational model of postpartum depression. *Child Development*, 57(6), 1507-1518.
- Dandy, J., & Nettelbeck, T. (2002). The relationships between IQ, homework, aspirations and

- academic achievement for chinese, vietnames and anglo-celtic astralian school children. *Education Psychology*, 22(3), 267-275.
- Dorsey, S., Klein, K., Forehand, R., & Family Health Project Research Group (1999). Parenting self-efficacy of HIV-infected mothers: The role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 295-305. .
- Dunst, C., Trivette, C., & Cross, A. (1986). Medeating influences of social support: Personal, family and child outcomes. *American Journal of Mental Deficiency*, 90, 403-417.
- Elder, G., Eccles, J., Ardelt, M., & Lord, S. (1995). Inner-city parents under economic pressure: Perspective on the strategies of parenting.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3), 771-784.
- Grusec, J., Goodnow, J., & Kuczynski, L. (2000). New directions in analyses of parenting contributions to children's acquisition of values. *Child Development*, 71(1), 205-211.
- Hess, R., & Holloway, S. (1984). Family and school as educational institutions. In R. D. Parke (Ed.),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Vol. 7*.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Jennings, K., Stagg, V., & Connors, R. (1991). Social networks and mothers' interactions with their preschool children. *Child Development*, 62(5), 966-978.
- Johnston, C., & Mash, E. (1989). A measure of parenting satisfaction and efficacy.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2), 167-175.
- McGillicuddy-DeLisi, A. (1985).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al beliefs and children's cognitive level. In I. E. Sigel (Ed.), *Parental belief system: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for children* (pp. 7-24).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McGillicuddy-Delisi, A. (1982).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beliefs about development and family constellation, socioeconomic status, and parents' teaching strategies, In L. M. Laosa & I. Sigel (Eds.), *Families as learning environments for children*. New York: Plenum.
- Parsons, J., Adler, T., & Kaczala, C. (1982). Socialization of achievement attitudes and beliefs: Parental influences. *Child Development*, 53(2), 310-321.
- Teti, O., & Gelfand, D. (1991). Behavioral competence among mothers of infant on the first year: The mediational role of maternal self-efficacy. *Child Development*, 62(5), 918-929.

(2004년 7월 13일 접수, 2004년 10월 12일 채택)